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國民學生的
民主市民的 資質에 關한 調查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 哲 豪

1995年 8月

濟州道 國民學生의
民主市民의 資質에 關한 調査 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 年 6 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哲豪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推함

1995 年 7 月 日

審 查 委 員 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抄錄>

濟州道 國民學生의
民主市民의 資質에 關한 調查 研究

金 哲 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恒 元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민주 시민의 자질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국민학교 민주 시민 교육 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및 질문지법을 이용하였고,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국민학생 856명이다. 조사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영역 4개 문항, 공공 질서 영역 5개 문항, 민주 사회에서의 절차 영역 3개 문항, 합리적인 의사 결정 영역 6개 문항 등 총 4개 영역 18개의 문항이다.

반응 결과는 문항별로 전체 반응 결과를 제시한 다음, 배경변인별 반응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 해석하였다.

조사 분석한 제주도 국민학생의 민주 시민의 자질은 다음과 같이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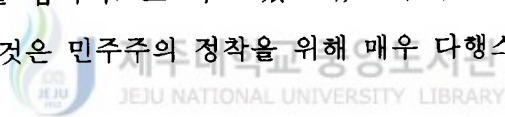
해 볼 수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영역의 자질은 전 영역 중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아 민주주의 근본 정신의 실현에 매우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중 평등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반응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 공공 질서 영역의 자질은 전 영역 중 긍정적 반응이 가장 낮으며, 특히 절약 정신,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민주 사회에서의 절차 영역의 자질은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으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조정, 수용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4.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자질 또한 비교적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으며, 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려는 인식이 높은 것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5
1. 民主主義의 概念	5
2. 民主市民의 概念	7
3. 民主市民의 資質	10
III. 研究의 方法	12
1. 調査道具	12
2. 調査對象	12
3. 資料處理	13
IV. 結果 및 論議	16
1. 人間의 尊嚴性	16
2. 公共 秩序	25
3. 民主社會에서의 節次	35
4. 合理的 意思 決定	41
V. 要約 및 結論	53
參考文獻	58
英文抄錄	61
附 錄	64

表 目 次

<표1> 조사도구의 문항 내용 및 문항수	14
<표2> 지역별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14
<표3> 배경변인별 표집 인원	15
<표4>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인식	17
<표5> 자유에 대한 바른 태도	19
<표6>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	21
<표7>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	23
<표8> 공공 규칙에 대한 태도	26
<표9> 약속 실천의 의지	27
<표10> 절약 정신	29
<표11> 환경 보전 활동의 참여	31
<표12>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	33
<표13> 의견 조정에 대한 태도	36
<표14> 바른 의견의 수용 태도	38
<표15> 투표권의 바른 행사	39
<표16> 쟁점 결정의 바른 태도	42
<표17> 토론 참여의 바른 태도	44
<표18> 합리적인 결정	46
<표19> 다수결 원리의 존중	47
<표20> 개방적인 의사 결정	49
<표21> 진실에 대한 인식	51

그림 목次

<그림1> 인간의 존엄성 영역의 자질	24
<그림2> 공공질서 영역의 자질	35
<그림3> 민주 사회에서의 질차 영역의 자질	41
<그림4> 합리적인 의사 결정 영역의 자질	52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1945년 8.15 해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대두된 중요한 교육 이념은 민주주의였으며, 선진 서구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토착화시키려고 노력한 지도 많은 세월이 흘렀다.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목표가 헌법이나 교육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 이념이라기 보다는 관념적, 이상적 이념으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양식이 사회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여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생각된다. 1987년 6.29선언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더욱 높아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였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는 국민들의 진정한 자각이며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윤리적 가치관이 필요하다. 또한 건전한 철학적, 윤리적 가치관은 건전한 사회를 만들며, 결국 건전한 사회는 건전한 시민을 만든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 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종합적인 생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삶의 방법적 원리를 개방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적 삶의 과정이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해야 하고, 바람직

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길은 시민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 교육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¹⁾

시민 교육은 곧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회에 참여키 위한 준비라는 주장도 있고, 또한 민주적 가치를 전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²⁾ 그리고 펜노크(J. R. Pennock)는 근대적 민주주의는 국민 대다수가 민주적 사고방식을 갖추고 민주적 행동을 할 수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³⁾ 고 주장한 바 있다.

어떠한 체제의 사회이든 그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세대가 성인이 된 후에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들을 사회화 시키는 노력을 한다. 민주주의는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는 신념과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선을 위해서 자제할 수 있는 각성된 의식과 생활 규범을 가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이다.⁴⁾ 즉 민주주의는 우리가 처한 여건에서 가치로운 인간의 삶의 조건을 개방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해 가는 과정이라는데 대한 공통 인식과, 그 구성원들이 그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다.

민주시민 교육은 가능하면 연령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은 학교에서 배워 내면화한 후 나중에 실천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한 학생들은 현재 민주시민으로서 어엿한 구성원이다.⁵⁾ 듀이(John Dewey)에 의하면 학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1) 광병선 외(1993), 『민주적 학생지도 민주적 학교운영』,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pp. 3-4.

2) 최종덕(1985), “시민 교육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p. 34.

3) J. Roland Pennock(1979), *Democratic Political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06-209.

4) 광병선 외, 전게서, p. 5.

사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자들은 시민 교육을 위한 윤리적 책임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민학교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조사, 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장래를 예견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나라 청소년의 정치 사회화 등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주시민의 자질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제주도, 그리고 국민학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국민학생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국민학교 민주시민 교육 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제주도 국민학생의 민주시민 자질의 수준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둘째, 민주시민의 자질이 성별, 지역별, 보호자의 직업 및 학력, 가족 구성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 셋째, 민주시민의 자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형성하기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제주도 국민학생의 민주시민의 자질을 조사, 분석하여 민주시

5) 상계서, pp. 5-7.

6) J.P.Shaver(1981), "Citizen ship, Values and Morality in Social Studies", *The Social Studies Eightie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ART II*, Chicago: Chicago Press, p. 105.

민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와 민주시민 교육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민주시민 자질에 관한 측정 변인으로 인간의 존엄성, 공공 질서, 민주 사회에서의 절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4개 영역으로 국한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위한 표집방법은 制限標本抽出에 의한 群集標集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제주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11개교 국민학생에 한정하였다.

셋째, 배경 변인도 성별, 학년별, 거주지별, 보호자의 학력별, 형제수별, 보호자의 직업별로 국한하였다.

넷째, 조사 방법으로 면접법, 관찰법, 개별적 설문 등은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없었고, 집단적 질문지 방법을 활용할 수 밖에 없었다.



II. 理論的 背景

1. 民主主義의 概念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제도나 행위를 '非民主的'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 행위나 제도가 나쁘다고 비난하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민족주의 등 오늘날의 거의 모든 'ism'을 포함할 만큼 넓은 범위의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민주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조차 개념 정의를 둘러싸고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현실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많은 논쟁과 혼란이 있다.⁷⁾

듀이(John Dewey)는 민주주의란 정치의 한 양식만이 아니라 그것은 주로 사회생활의 한 양상이며 공동경험의 한 양식⁸⁾이라 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는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생활 방식의 하나로 교육의 과정과 방식이 민주적이어야 한다⁹⁾고 하였으며, 민주화는 누가 가져다주고, 우리가 소유하면 되는 일이 아니고, 민주화의 실현은 모든 국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함양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¹⁰⁾고 하였다. 즉 민주라는 의미는 정치 양식 및 생활 양상으로서 제도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7) 김하룡, 한배호 공저(1974), 『정치학』, 일신사, p. 85.

8) John Dewey(1916), *Democracy and education*, The Macmillan Co, p. 8.

9) 오천석(1975), 『민주교육을 지향하여』, 광명출판사, p. 82.

10) 정세구(1985), 『국민정신 교육의 과제』, 과학교육사, pp. 103-126.

있으며, 맨하임(K. Mannheim)의 지적처럼 '최대한의 안정과 능률 그리고 자유'¹¹⁾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첫째는 규범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도덕적 가치, 궁극적 이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표로 삼으려는 것으로, 로크(J.Locke), 루소(J.J.Rousseau), 밀(J.S.Mill) 과 같은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인데, 민주주의를 생활의 한 방식, 또는 사회 생활의 한 이념이나 철학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경험적 개념이다.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 현실로 보고 그것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나 설명에 의해서 그 개념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슈페터(Joseph A.Schumpeter), 리프셀(Martin Lipset) 등의 주장이다.

셋째는 규범적 민주주의 개념과 경험적 민주주의 개념을 결부시키려고 노력하는 규범-경험적 개념이다.

듀이(John Dewey) 등의 주장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 공동사회 등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절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 현실이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설명에도 관심을 갖는다.¹²⁾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는 이념적, 가치적 측면과 아울러 그 못지 않게 제도적, 과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즉 민주주의는 이념적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경험적 개념의 실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구조가 고도화되고 인구가 비대해진 상황에서

11) Karl Mannheim(1965), *Freedom, Power and Democratic Planning*, Oxford University Press, p. 45.

12) M. Rejai(1967), *Democracy, The Contemporary Theories*, New York: Atherton Press, pp. 23-42.

민주주의의 경험이란 다만 정치적 자유,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의 참여가 그 대부분이며, 나아가 자신의 대표가 공공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적극적인 관심 등은 일반적 추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경험적 개념은 역시 그 이론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들의 결합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고찰이 요구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 하겠다.

2. 民主市民의 概念

시민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정한 지역이나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여 시민들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주의 사회에 한정시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시민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citizen)이란 말은 보다 더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유는 이 말이 역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이라는 말은 시간이나 장소가 변함에 따라 다소간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본래 ‘市民’이란 고대 그리스 시대에 도시 공동체였던 ‘폴리스(polis)’를 구성하고 지배했던 사회 계층을 의미했던 말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도시 공동체에서의 정치형태는 페리클레스(Pericles)가 격찬한 바와 같이 당시 어떠한 정치제도와의 비교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한 것이었으며, 이를 주도해 갔던 세력들이 바로 시민들이었던 것이다.¹³⁾

시민이란 말이 보다 더 근대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은 유럽 사회에

13) 신정현 외(1987), 『민주시민 교육론』, 탐구당, p. 24.

서 중세의 봉건체제가 근대적인 사회 체제로 변화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절대군주와 귀족계급에 대항해서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수립하는데 성공한 시민들은 주권자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계속 확대시키는데 관심을 가져, 소위 시민권을 확대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민권에는 3가지 주요 요소들이 있는데¹⁴⁾ 첫째는 시민적 요소요, 둘째는 정치적 요소, 셋째는 사회적 요소이다. 즉 시민적 요소란 개인의 자유를 확립시키는데 필요한 권리들로 개인의 자유, 언론, 사상 및 신념의 자유, 재산권, 계약체결권, 재판권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요소란 개인이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의 일원으로 혹은 그러한 기관의 구성원들을 선출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적 요소란 복지와 안전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 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와 개인이 문명화된 존재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소유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확립은 시민들 스스로 절대 권력에 대한 투쟁과 정치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획득된 권리는 적당히 보존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적 자질의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민주시민이란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존중하며, 급변하는 사회에 적용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생활을 추구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¹⁵⁾ 고 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 의식을 소유한 구성원들은 의사의 자율성, 행위의 자기 결정성, 행위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지닌다.¹⁶⁾

14) 상계서, pp. 26- 27.

15) 이영기(1981), “고등학교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산업사회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연구실, p. 12.

현대사회에서 사회체제 및 제도는 인간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사회 행동을 강하게 조건 짓는다.¹⁷⁾ 그러므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시민적 자질의 향상은 시민권의 확립 및 신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적 자질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한다.¹⁸⁾

첫째,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들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을 육체적 유기체로서 재생산하고 유지하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은 그들 스스로와 세계를 보는 하나의 공통적인 기본 방법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이해하고 서로 의사를 소통하며 또한 다같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합의권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응집력과 통일된 방향에 따라 어떤 목적들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은 광범위한 교육 제도 및 교육 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은 그들 자신은 물론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을 철저히 주지시켜 사회가 민주적 질서를 견지하면서 생동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 체계를 확보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넷째, 시민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조화적인 기능 수행을 위협하는 어떠한 파괴적 행위도 적당히 통제 내지는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16)李克燦(1983), 『민주주의』, 종로서적, p. 122.

17)李永鎭(1981), 『국민의식 연구』, 사회정화위원회, pp. 114-115.

18) 신정현 외, 전계서, pp. 33-34.

3. 民主 市民의 資質

민주시민이란 민주주의 체제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을 뜻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자기 구실을 다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사회적 관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따라서 훌륭한 시민의 양성이라는 시민 교육은 훌륭한 시민의 자질 즉 시민성이 무엇인가를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사회과 목표로서의 민주시민의 자질은 반성적 사고력, 인지적, 정의적 목표 및 구조, 의사 결정 능력, 사고의 과정 등 사고력의 향상에 있는데, 그 중 반성적 사고력이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산업 사회의 사회생활에서 요청되는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핵심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사회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문제 해결력, 또는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포괄적인 인간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민 교육의 내용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민 교육의 방향도 물론 바뀌어 시민 교육의 내용을 일정하게 규정짓기가 어려우나, 다가 올 미래 사회를 예상하며, 바람직한 민주 사회 건설의 의욕과 책임감을 가진 미래의 시민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떠한 인간상을 그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면에서 어떠한 행동 특성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지도 방향이 된다 할 것이다.

1952년 미국의 마이어(A.R.Meier) 교수가 연구, 발표한 『디트로이트 시민 교육 연구(Detroit Citizenship Education Study)』에 의하면 훌륭한 민주 시민의 중요 자질을 다음의 5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¹⁹⁾

첫째, 훌륭한 시민은 민주주의의 이상에 열성을 다한다. 그는 민주적 생활 방식에 합치되는 가치관을 신봉하고 이들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행동을 취한다.

둘째, 훌륭한 시민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할 것을 깨닫고 돕고자 노력한다.

셋째, 훌륭한 시민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 필수품을 시여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넷째, 훌륭한 시민은 가정, 학교, 마을, 국가 및 세계 관계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을 인정한다.

다섯째, 훌륭한 시민은 민주적인 생활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 기 능, 능력을 갖고 생활한다.

요컨대, 디트로이트 시민 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훌륭한 시민의 자질은 민주적 가치관, 사회 문제의 해결,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 인간 관계의 상호의존성, 민주 사회에 필요한 지식, 기 능,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 Arnold R. Meier(1952), *A Curriculum for Citizenship*, Detroit:Wayne Univ.Press, pp. 15-16.

Ⅲ. 研究의 方法

1. 調査 道具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 도구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인간의 존엄성, 공공 질서, 민주사회에서의 절차, 합리적 의사 결정의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이러한 내용을 18개의 문항으로 Likert식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제작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 제시한 '민주시민의 자질 항목'을 인용하여, 배경 조사 문항 6개를 포함한 24개 문항으로 하였으며, 1994년 11월 30일 제주교육대학교 부속국민학교 5. 6학년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거쳐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이 문항 중 본 연구의 중핵을 이루는 민주시민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을 영역별로 제시하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러한 민주시민의 자질 측정을 위한 문항들은 각 문항마다 5단계의 반응답지가 주어지는 Likert식이다. 즉 '확실히 그렇다'에 5점, '그런 것 같다'에 4점, '잘 모르겠다'에 3점, '아닌 것 같다'에 2점, '확실히 아니다'에 1점으로 배점하여 반응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경향이 높음을 뜻하며, 중. 부정의 기본은 대체로 3점을 기준으로 좌우 경향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석하였다.

2. 調査 對象

본 연구의 표집 방법은 制限標本抽出(Restricted Sampling)에 의한 群集標

集方法(Cluster Technique)을 사용하였는데, 지역과 학생 수를 고려하여 제주시 지역 5개교 470명, 서귀포시 지역 2개교 150명, 북제주군 지역 2개교 140명, 남제주군 지역 2개교 140명 등 총 11개교 국민학교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19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학교 5,6학년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 회수하였다.

질문지의 조사 결과는 <표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회수된 질문지의 수는 896명으로,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전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성의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된 표집수는 856명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 변인별 표집 인원은 <표3>과 같다.

3. 資料 處理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전산 처리(SPSS)되었으며, 사용된 통계치는 평균(M), 백분비(%), 표준편차(SD)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전체 및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의 평균(M)과 백분비(%)를 가지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경향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5단계의 반응 분포를 대체로 '확실히 그렇다'와 '그런 것 같다'를 합쳐 '그렇다'로, '확실히 아니다'와 '아닌 것 같다'를 합쳐 '아니다'로 제시하여 해석한 경우가 많았으며, 배경 변인별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F-검증을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내용 및 문항수

영역	문항번호	내용
인간의 존엄성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인식
	2	자유에 대한 바른 태도
	3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
	4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
공공질서	5	공공규칙에 대한 태도
	6	약속실천의 의지
	7	절약정신
	8	환경보전활동의 참여
	9	공공질서유지에 대한 의지
민주사회에서의 절차	10	의견조정에 대한 태도
	11	바른의견의 수용태도
	12	투표권의 바른 행사
합리적의사결정	13	쟁점결정의 바른 태도
	14	토론참여의 바른 태도
	15	합리적인 결정
	16	다수결원리의 존중
	17	개방적인 의사결정
	18	진실에 대한 인식
문항합계	18	

<표 2> 지역별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역별	질문지 배부수	회수된 수	사용불가능한 수	유효한 수	회수율 (%)
제주시	470	468	28	440	99.6
서귀포시	150	150	2	148	100.0
북제주군	140	140	4	136	100.0
남제주군	140	138	6	132	98.6
계	900	896	40	856	99.6

<표 3> 배경 변인별 표집인원

배경 변인	변인 구분	인 원	구성비(%)	계
성 별	남	436	50.9	856
	여	420	49.1	
학 년 별	5학년	432	50.5	856
	6학년	424	49.5	
지 역 별	읍.면	268	31.3	856
	시	588	68.7	
보 호 자 학 력 별	국졸	82	9.6	856
	중졸	119	13.9	
	고졸	433	50.6	
	대졸이상	222	25.9	
형제수별	1-2명	467	54.6	856
	3-4명	324	37.8	
	5명이상	65	7.6	
보 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156	18.2	856
	상업.서비스업	214	25.0	
	회사원	115	13.4	
	공무원	143	16.7	
	기 타	228	26.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V. 結果 및 論議

결과 및 논의는 조사 도구에서 제시한 18개의 문항에 대한 표집 대상들의 반응 결과를 영역별 문항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 경향 및 반응 분포를 제시하고, 둘째 표집대상의 배경 변인별 유의한 차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그 유의한 차의 결과를 중심으로 반응 경향을 해석하고 논의하며, 셋째 각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를 차례로 분석하면서 논의하고, 넷째 전체 및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거나 각 문항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반응 결과를 종합해서 제시하려고 한다.

1.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영역에 대한 자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4개의 문항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인식, 자유에 대한 바른 태도,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 등으로,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인식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나와 똑 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

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89.9%)이 부정적 반응(2.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학생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학년별(P<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5학년(91.9%)이 6학년(87.8%)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성별로는 남학생(90.9%)이 여학생(88.8%)보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91.7%)이 읍.면(85.8%)지역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 직업별로는 대졸 이상(92.2%), 중졸(89.9%), 고졸(80.0%), 국졸(87.8%), 형제 수별로는 1-2명(91.2%), 3-4명(88.3%), 5명 이상(87.7%),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93.0%), 회사원(91.3%), 상업. 서비스업(90.6%), 농. 수산업(86.5%)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학생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표 4>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인식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 응 구 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4.43	0.76	56.1	33.8	8.1	1.4	0.7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4.42	0.75	0.287	53.7	37.2	7.3	0.9	0.9
	여	49.1	4.45	0.77		58.6	30.2	8.8	1.9	0.5
학년별	5학년	50.5	4.48	0.71	4.229	58.3	33.6	6.7	0.9	0.5
	6학년	49.5	4.38	0.81	*	53.8	34.0	9.4	1.9	0.9
지역별	읍.면	31.3	4.38	0.84	1.729	56.3	29.5	11.2	1.9	1.1
	시	68.7	4.45	0.72		56.0	35.7	6.6	1.2	0.5
보호자 학력별	국졸	9.6	4.32	0.80	1.015	47.6	40.2	9.8	1.2	1.2
	중졸	13.9	4.45	0.75		58.0	31.9	7.6	2.5	0.0
	고졸	50.6	4.42	0.79		56.6	32.4	8.5	1.6	0.9
	대졸이상	25.9	4.48	0.68		57.1	35.1	6.8	0.5	0.5
형제수 별	1-2명	54.6	4.43	0.76	0.561	55.2	36.0	6.6	1.1	1.1
	3-4명	37.8	4.45	0.74		58.0	30.3	10.2	1.5	0.0
	5명이상	7.6	4.34	0.87		52.3	35.4	7.7	3.1	1.5
보호자 직업별	농.수산 업	18.2	4.35	0.83	0.765	60.7	29.9	6.1	2.8	0.5
	상업.서 비스업	25.0	4.48	0.77		60.7	29.9	6.1	2.8	0.5
	회사원	13.4	4.46	0.68		55.6	35.7	7.8	0.9	0.0
	공무원	16.7	4.46	0.63		53.1	39.9	7.0	0.0	0.0
	기타	26.7	4.41	0.81		56.1	32.5	8.8	1.3	1.3

(* p<0.05)

2) 자유에 대한 바른 태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자유가 중요하며, 올바른 자유를 실천하는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즉 자유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꼭 책임을 진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 경향은 긍정적 반응(69.3%)이 부정적 반응(9.5%)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자유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지역별($p < 0.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시 지역(72.6%)이 읍·면 지역(62.3%)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도시 국민학생이 농·어촌의 국민학생보다 자유에 따른 책임감이 높아 자유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의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성별로는 여학생(70.0%)이 남학생(68.8%)보다, 학년별로는 6학년(75.6%)이 5학년(69.2%)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으며,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77.0%), 고졸(67.4%), 중졸(67.2%), 국졸(62.2%)순으로, 형제 수별로는 3-4명(73.5%), 1-2명(67.4%), 5명 이상(63.1%) 순으로, 보호자 직업별로는 회사원(75.6%), 공무원(72.7%), 농·수산업(71.1%), 상업·서비스업(63.0%)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표 5> 자유에 대한 바른 태도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91	0.98	31.9	37.5	21.0	8.6	0.9

(2)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90	0.99	0.964	32.3	36.5	21.1	8.9	1.2
	여	49.1	3.92	0.96		31.4	38.6	21.0	8.3	0.7
학년 별	5학년	50.5	3.92	0.98	0.232	33.1	36.1	21.8	8.1	0.9
	6학년	49.5	3.90	0.98		36.7	38.9	20.3	9.2	0.9
지역 별	읍. 면	31.3	3.74	1.02	12.38	26.1	36.2	24.3	11.9	1.5
	시	68.7	3.99	0.94	***	34.5	38.1	19.6	7.1	0.7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71	1.19	2.366	31.7	30.5	19.5	13.4	4.9
	중졸	13.9	3.87	0.99		31.1	36.1	21.8	10.1	0.9
	고졸	50.6	3.90	0.97		31.6	35.8	23.8	8.1	0.7
	대졸이상	25.9	4.03	0.88		32.9	44.1	15.8	7.2	0.0
형제 수별	1-2명	54.6	3.88	1.01	1.726	32.3	35.1	21.6	9.9	1.1
	3-4명	37.8	3.98	0.91		32.1	41.4	19.4	6.5	0.6
	5명이상	7.6	3.77	1.03		27.7	35.4	24.6	10.8	1.5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87	1.03	0.931	30.1	41.0	16.1	10.9	1.9
	상업. 서비스업	25.0	3.83	0.99		30.8	32.2	25.8	11.2	0.0
	회사원	13.4	4.00	0.86		30.4	45.2	18.3	6.1	0.0
	공무원	16.7	3.99	1.01		37.1	35.6	17.5	8.4	1.4
	기타	26.7	3.92	0.96		31.6	37.3	23.7	6.1	1.3

(*** p<0.001)

3)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

자유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 실현의 근본 요소인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어린이를 차별해서 대해 본 적이 없다' 라는 질

<표 6>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2.95	1.16	8.6	27.5	25.8	26.3	11.8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성별	남	50.9	2.30	1.20	0.189	9.9	28.2	22.9	26.6	12.4
	여	49.1	2.93	1.13		7.4	26.6	28.8	26.0	11.2
학년별	5학년	50.5	2.88	1.13	3.071	6.9	25.0	29.4	26.4	12.3
	6학년	49.5	3.02	1.20		10.4	29.9	22.2	26.2	11.3
지역별	읍.면	31.3	2.93	1.20	0.155	9.7	26.9	22.4	28.3	12.7
	시	68.7	2.96	1.15		8.2	27.7	27.4	25.3	11.4
보호자학력별	국졸	9.6	2.87	1.24	0.583	9.8	26.8	17.1	32.9	13.4
	중졸	13.9	2.98	1.15		6.7	32.8	22.7	26.9	10.9
	고졸	50.6	2.99	1.17		9.0	29.3	25.2	24.7	11.8
	대졸이상	25.9	2.88	1.13		8.6	21.1	32.0	26.6	11.7
형제수별	1-2명	54.6	2.87	1.20	2.631	8.4	26.1	24.0	27.9	14.5
	3-4명	37.8	3.06	1.10		8.3	29.9	29.0	24.7	8.1
	5명이상	7.6	2.99	1.22		12.3	24.6	23.1	29.2	10.8
보호자직업별	농.수산업	18.2	2.96	1.22	0.715	10.3	28.2	21.1	27.6	12.8
	상업.서비스업	25.0	2.90	1.18		9.4	23.8	27.1	27.1	12.6
	회사원	13.4	2.91	1.16		5.2	33.1	23.5	24.3	13.9
	공무원	16.7	2.87	1.15		8.4	23.0	28.0	28.7	11.9
	기타	26.7	3.05	1.16		8.8	30.3	27.6	24.1	9.2

문을 제시한 결과,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36.1%)보다 부

정적 반응(38.1%)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해서는 인간이 평등함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성별로는 남학생(39.0%), 학년별로는 5학년(38.7%), 지역별로는 읍. 면 지역(41.1%), 보호자 학력별로는 국졸(46.3%), 형제 수별로는 1-2명(41.5%), 보호자 직업별로는 농. 수산업(40.4%)집단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4)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

사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고장이나 학교를 우리 가정처럼 소중히 여긴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7.2%)이 부정적 반응(1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비교적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형제 수별($p < 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형제 수가 3-4명(61.1%), 1-2명(56.3%), 5명 이상(44.6%)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형제수가 가장 많은 집단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장 낮은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특히 형제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그외는 배경 변인별로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으나,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성별로는 남자(58.7%), 학년별로는 5학년(60.2%), 지역별로는 시 지

<표 7>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60	1.07	22.4	34.8	26.1	13.8	2.9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 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59	1.09	0.032	22.2	36.5	23.2	14.7	3.4
	여	49.1	3.61	1.05		22.6	33.1	29.0	12.9	2.4
학년 별	5학년	50.5	3.65	1.12	2.095	26.2	34.0	22.7	13.2	3.9
	6학년	49.5	3.55	1.01		18.6	35.6	29.5	14.4	1.9
지역 별	읍. 면	31.3	3.58	1.06	0.167	21.3	35.0	26.9	13.8	3.0
	시	68.7	3.61	1.07		22.9	34.7	25.7	13.8	2.9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51	1.13	0.221	24.4	26.8	25.6	22.0	1.2
	중졸	13.9	3.62	1.07		21.0	37.8	24.4	16.0	0.8
	고졸	50.6	3.60	0.08		23.1	33.4	27.5	12.5	3.5
	대졸이상	25.9	3.62	0.06		21.2	38.7	24.3	12.2	3.6
형제 수별	1-2명	54.6	3.57	1.09	3.952 *	21.8	34.5	27.0	12.6	4.1
	3-4명	37.8	3.70	1.03		25.0	36.1	23.8	13.9	1.2
	5명이상	7.6	3.31	1.06		13.8	30.8	30.8	21.5	3.1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58	1.11	0.496	23.7	32.1	25.6	15.4	3.2
	상업.서 비스업	25.0	3.58	1.06		20.6	37.8	23.8	15.0	2.8
	회사원	13.4	3.59	1.10		25.2	29.6	26.1	17.4	1.7
	공무원	16.7	3.53	1.04		17.5	37.7	29.4	11.2	4.2
	기타	26.7	3.68	1.05		25.0	34.7	26.7	11.4	2.6

(* p<0.05)

역(57.6%),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59.9%), 보호자 직업별로는 상업·서비스업(58.4%)이며, 긍정적인 반응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은 형제 수가 5명 이상(44.6%)으로 나타나고 있어, 형제 수가 많을 때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이 낮은 것은 매우 특이하다 하겠다.

5) 인간의 존엄성 영역의 자질

인간의 존엄성 영역의 4개 변인의 자질을 종합 분석해 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바른 인식(M=4.43)과 자유에 대한 바른 태도(M=3.91)는 긍정적 반응이 매우 높으나,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M=2.95)는 부정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인간의 존엄성 영역의 자질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와 생활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인간의 존엄성 영역의 자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4.43				
자유에 대한 태도	3.91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	2.95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	3.60				
내용	1	2	3	4	5
M					

2. 공공 질서

공공 질서 영역에 대한 자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의 문항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공공 규칙에 대한 태도, 약속 실천의 의지, 절약 정신, 환경 보전 활동의 참여,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 등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규칙에 대한 태도

스스로 공공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 질서 등 공공 규칙을 잘 지킨다' 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8.4%)이 부정적 반응(21.6%)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공공 규칙 지키기에 대한 자질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점차 우리 사회의 공공 질서가 바르게 정착되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8>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성별($p<0.05$), 지역별($p<0.001$), 보호자 학력별($p<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성별로는 여자(61.6%)가, 남자(55.3%)보다 높게, 지역별로는 시 지역(64.6%)이 읍.면 지역(44.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64.0%), 고졸(58.8%), 중. 국졸(51.2%)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낮아지고 있어,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지역적으로는 시 지역, 그리고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형제수 별로는 1-2명(59.8%), 보호자 직업 별로는 회사원(66.9%) 등이다.

<표 8> 공공 규칙에 대한 태도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46	1.02	12.1	46.3	2.0	18.6	3.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38	1.08	5.557 *	12.2	43.1	19.5	20.8	4.4
	여	49.1	3.54	0.96		12.1	49.5	20.5	16.2	1.7
학년 별	5학년	50.5	3.47	1.02	0.143	13.0	45.1	20.8	18.3	2.8
	6학년	49.5	3.45	1.03		11.3	47.4	19.1	18.9	3.3
지역 별	읍·면	31.3	3.21	1.45	23.98 ***	9.3	35.5	25.7	25.7	3.8
	시	68.7	3.57	0.99		13.4	51.3	17.3	15.3	2.7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22	1.13	2.726 *	9.8	41.3	15.9	26.8	6.1
	중졸	13.9	3.34	0.99		9.2	42.0	23.5	23.5	1.8
	고졸	50.6	3.50	1.00		12.9	45.9	21.7	16.9	2.6
	대졸이상	25.9	3.54	1.03		13.1	50.9	16.2	16.2	3.6
형제 수별	1-2명	54.6	3.47	1.06	1.131	13.1	46.7	18.4	17.8	4.0
	3-4명	37.8	3.48	0.99		12.3	46.0	21.0	18.8	1.9
	5명이상	7.6	3.28	0.93		4.6	44.6	26.2	23.1	1.5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18.2	3.33	0.12	1.892	8.3	45.5	20.6	22.4	3.2
	상업·서 비스업	25.0	3.41	1.07		12.1	45.3	17.8	20.6	4.2
	회사원	13.4	3.64	0.92		13.0	53.9	17.4	14.8	0.9
	공무원	16.7	3.55	1.01		12.6	51.7	17.5	14.7	3.5
	기타	26.7	3.45	1.03		14.0	40.4	24.6	18.4	2.6

(* p<0.05 *** p<0.001)

2) 약속 실천의 의지

약속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61.9%)이 부정적인 반응(17.0%)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9>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배경 변인별 반응 결과, 형제 수별($p < 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3-4명(66.4%), 1-2명(60.6%), 5명 이상(49.2%)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낮아지고 있는데, 5명 이상 형제 수가 많을수록 약속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으나.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집단은, 성별로는 여자(63.4%), 학년별로는 6학년(63.9%), 지역별로는 시지역(65.0%),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70.3%),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65.7%) 등이다.



<표 9> 약속 실천의 의지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65	1.04	21.8	40.1	21.1	15.0	2.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63	1.03	0.255	21.3	39.2	21.8	16.5	1.2
	여	49.1	3.67	1.05		22.4	41.0	20.5	13.3	2.8
학년 별	5학년	50.5	3.62	1.08	0.739	22.9	37.0	21.5	16.0	2.6
	6학년	49.5	3.68	0.99		20.8	43.1	20.8	13.9	1.4
지역 별	읍.면	31.3	3.55	1.00	3.334	18.3	36.9	27.6	16.0	1.2
	시	68.7	3.69	1.06		23.5	41.5	18.1	14.5	2.4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54	1.11	1.783	23.2	29.3	29.3	14.6	3.6
	중졸	13.9	3.53	1.05		16.8	41.2	23.5	15.1	3.4
	고졸	50.6	3.64	1.03		21.9	38.6	22.9	15.0	1.6
	대졸이상	25.9	3.77	1.02		23.9	46.4	13.5	14.9	1.3
형제 수별	1-2명	54.6	3.64	1.07	5.404	23.3	37.3	21.6	15.4	2.4
	3-4명	37.8	3.74	0.96	**	21.3	45.1	20.7	12.0	0.9
	5명이상	7.6	3.28	1.14		13.8	35.4	20.0	26.2	4.6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65	1.00	0.195	21.8	37.8	25.0	14.7	0.7
	상업.서 비스업	25.0	3.64	1.07		22.4	38.8	21.5	14.5	2.8
	회사원	13.4	3.64	0.99		18.3	46.1	18.3	16.5	0.8
	공무원	16.7	3.71	1.02		23.1	42.6	17.5	16.1	0.7
	기타	26.7	3.62	1.09		22.3	38.3	21.9	14.0	3.5

(** p<0.01)

2) 절약 정신

절약 정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항상 절약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0>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40.8%)이 부정적 반응(30.4%)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

<표 10> 절약 정신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20	1.08	13.2	27.6	28.9	26.9	3.5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 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 별	남	50.9	3.17	4.08	0.633	12.2	28.0	28.6	27.3	3.9
	여	49.1	3.23	1.09		14.3	27.1	29.1	26.4	3.1
학년 별	5학년	50.5	3.20	1.11	0.006	15.0	24.3	31.3	24.8	4.6
	6학년	49.5	3.20	1.05		11.3	30.9	26.4	29.0	2.4
지역 별	읍. 면	31.3	3.12	1.11	2.421	13.8	22.4	29.9	29.5	4.4
	시	68.7	3.24	1.67		12.9	29.9	28.4	25.7	3.1
보호 자하 려별	국졸	9.6	2.87	1.08	5.213	9.8	18.3	24.4	43.9	3.6
	중졸	13.9	3.08	1.14	**	11.8	25.2	30.2	24.4	8.4
	고졸	50.6	3.21	1.06		13.2	26.6	31.1	26.1	3.0
	대졸이상	25.9	3.38	1.06		15.3	34.3	25.2	23.4	1.8
형제 수별	1-2명	54.6	3.19	1.20	0.268	13.7	26.1	29.6	26.6	4.0
	3-4명	37.8	3.23	1.05		11.1	30.5	28.4	26.5	2.5
	5명이상	7.6	3.14	1.16		15.4	23.1	26.1	30.8	4.6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18.2	3.01	1.09	2.234	10.3	24.4	26.3	34.6	4.4
	상업.서	25.0	3.24	1.11		14.5	28.5	28.0	24.8	4.2
	비스업									
	회사원	13.4	3.29	1.00		10.4	33.9	32.2	20.9	2.6
	공무원	16.7	3.35	1.08		18.2	25.9	29.4	25.9	0.6
기타	26.7	3.15	1.09	12.3	26.8	29.3	27.2	4.4		

(** p<0.01)

나, 잘 모르겠다(28.9%)를 포함하면 절약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아, 절약 정신의 실천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10>에 나타난 것처럼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보호자 학력별 ($p<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대졸 이상(49.6%), 고졸(39.8%), 중졸(37.0%), 국졸(28.1%)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낮아지고 있는데, 보호자 학력이 낮을수록 절약에 대한 의지가 낮게 나타난 것은 특이하다 하겠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으나, 특히 보호자 학력이 국졸(47.5%)인 경우 부정적인 반응이 매우 높으며, 보호자 직업별로는 농·수산업(39.0%), 형제수 별로는 5명 이상(35.4%),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34.9%), 학년별로는 6학년(31.4%) 등도 부정적인 반응이 높은 집단으로,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절약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4) 환경 보전 활동의 참여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45.0%)이 부정적 반응(23.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잘 모르겠다(31.8%)라는 반응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환경 보전 의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즈음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환경 보전의 실천을 위한 교육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보호자 학력별 ($p<0.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긍정적 반응이 대졸 이상(51.4%), 중졸

<표 11> 환경보전 활동의 참여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29	1.05	12.3	32.7	31.8	18.7	4.6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23	1.03	3.422	9.4	33.9	32.1	19.3	5.3
	여	49.1	3.36	1.06		15.2	31.4	31.4	18.2	3.8
학년 별	5학년	50.5	3.33	1.07	0.932	14.6	30.3	32.9	17.8	4.4
	6학년	49.5	3.26	1.03		9.9	35.1	30.7	19.6	4.7
지역 별	읍.면	31.3	3.24	1.08	1.095	11.9	32.2	29.1	21.6	5.2
	시	68.7	3.32	1.03		12.4	33.0	33.0	17.3	4.3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2.90	1.14	5.777 ***	8.5	23.2	29.3	28.0	11.0
	중졸	13.9	3.31	0.89		5.0	43.7	29.4	21.0	0.9
	고졸	50.6	3.28	1.06		13.2	30.0	33.0	19.2	4.6
	대졸이상	25.9	3.46	1.03		15.8	35.6	31.5	13.1	4.0
형제 수별	1-2명	54.6	3.35	1.00	1.885	11.8	35.1	32.8	17.1	3.2
	3-4명	37.8	3.25	1.07		12.0	31.2	31.8	19.4	5.6
	5명이상	7.6	3.12	1.24		16.9	23.1	24.6	26.2	9.2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21	1.09	1.255	12.2	29.5	31.4	21.2	5.7
	상업.서 비스업	25.0	3.27	1.04		13.1	28.0	35.0	20.6	3.3
	회사원	13.4	3.49	1.09		19.1	33.9	27.0	16.5	3.5
	공무원	16.7	3.27	0.99		9.1	35.7	32.2	19.6	3.4
	기타	26.7	3.29	1.05		10.1	36.8	31.1	15.8	6.2

(*** p<0.001)

(48.7%), 고졸(43.2%), 국졸(31.7%)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호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환경 보전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하게 국졸의 경우는 부정적 반응(39.0%)이 오히려 긍정적 반응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비교적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성별로는 여자(46.6%), 학년별은 6학년(45.0%), 형제수 별로는 1-2명(46.9%), 보호자 직업별로는 회사원(53.0%) 등이다.

5)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

사회의 공공 질서를 스스로 유지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면 지적해 주거나 충고해 준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2>에 나타난 것처럼 긍정적 반응(39.0%)이 부정적 반응(36.0%)보다 다소 높으나, 잘 모르겠다(25.0%)라는 반응을 포함하면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는 전체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지역별 ($p<0.01$), 보호자 학력별($P<0.001$), 형제수별($p<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긍정적 반응은, 시 지역(42.3%)이 읍. 면 지역(31.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읍. 면 지역은 부정적 반응(41.4%)이 긍정적 반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보호자 학력별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긍정적 반응은 대졸 이상

<표 12>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05	1.19	11.8	27.2	25.0	25.8	10.2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 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02	1.18	0.593	10.6	27.7	25.7	24.8	11.2	
	여	49.1	3.08	1.19		13.1	26.7	24.3	26.9	9.0	
학년 별	5학년	50.5	2.98	1.22	2.457	12.5	24.1	24.5	27.1	11.8	
	6학년	49.5	3.11	1.15		11.1	30.4	25.5	24.5	8.5	
지역 별	읍.면	31.3	2.88	1.20	7.361	10.8	20.9	26.9	28.7	12.7	
	시	68.7	3.12	1.18		**	12.2	30.1	24.1	24.5	9.1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2.77	1.15	6.692	7.3	30.7	26.8	31.8	13.4	
	중졸	13.9	2.81	1.13		7.6	21.8	25.2	34.5	10.9	
	고졸	50.6	3.04	1.19		***	10.9	28.2	25.8	23.8	11.3
	대졸이상	25.9	3.30	1.89		17.6	30.6	22.5	23.0	6.3	
형제 수별	1-2명	54.6	3.15	1.16	5.834	13.1	28.5	26.3	24.2	7.9	
	3-4명	37.8	2.99	1.21		**	10.2	28.4	24.1	24.4	12.9
	5명이상	7.6	2.65	1.18		10.8	12.3	20.0	44.6	12.3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2.82	1.25	2.279	10.3	23.1	21.2	29.4	16.0	
	상업.서 비스업	25.0	3.12	1.16		12.6	26.6	19.5	22.4	8.9	
	회사원	13.4	3.23	1.24		19.1	14.3	24.3	24.3	8.0	
	공무원	16.7	3.04	1.15		11.2	25.9	25.9	29.4	7.6	
	기타	26.7	3.05	1.16		8.8	32.9	23.2	25.0	10.1	

(** p<0.01 *** p<0.001)

(48.2%)이 고졸(39.1%), 중졸(29.4%), 국졸(2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정적 반응은 국졸(45.2%), 중졸(45.4%)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형제수 별로 보면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1-2명(41.6%), 3-4명(38.6%), 5명 이상(23.1%)순이며, 부정적 반응은 1-2명(32.1%), 3-4명(37.3%), 5명 이상(56.9%)순으로 높아지고 있어, 형제 수가 적을수록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성별로는 여자(39.8%), 학년별로는 6학년(41.5%), 보호자 직업별로는 회사원(43.4%) 등이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6) 공공 질서 영역의 자질

공공 질서 영역의 5개 변인의 자질을 종합 분석하여 보면, <그림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약속 실천의 의지(M=3.65)와 공공 규칙에 대한 태도(M=3.46)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절약 정신(M=3.20), 환경보전 활동의 참여(M=3.20), 특히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M=3.05)는 비교적 높지 않아 공공 질서 영역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림 2> 공공 질서 영역의 자질

공공규칙에 대한 태도						
약속 실천의 의지						
절약 정신						
환경보전 활동의 참여						
공공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						
내용	M	1	2	3	4	5

3. 민주사회에서의 절차



민주사회에서의 절차 영역에 대한 자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문항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의견 조정에 대한 태도, 바른 의견의 수용 태도, 투표권의 바른 행사에 대한 태도 등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견 조정에 대한 태도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인 의견 조정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이야기를 나누어 해결한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3>에 나타난 것처럼 긍정적 반응(53.2%)이 부정적 반응(19.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의

<표 13> 의견 조정에 대한 태도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51	1.13	21.7	31.5	27.1	15.0	4.7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 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 별	남	50.9	3.38	1.12	11.33	18.6	29.6	28.9	17.2	5.7
	여	49.1	3.64	1.10		***	25.0	33.6	25.2	12.6
학년 별	5학년	50.5	3.55	1.09	1.330	22.2	31.7	28.9	13.2	4.0
	6학년	49.5	3.46	1.16		21.2	31.4	25.2	16.7	5.5
지역 별	읍. 면	31.3	3.47	1.15	3.338	21.3	31.3	26.9	14.5	6.0
	시	68.7	3.52	1.11		21.9	31.6	27.3	15.1	4.1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35	1.15	1.858	18.3	25.6	37.8	9.8	8.5
	중졸	13.9	3.35	1.09		16.0	30.3	31.0	18.5	4.2
	고졸	50.6	3.53	1.15		23.6	30.2	26.6	14.8	4.8
	대졸이상	25.9	3.60	1.09		22.5	36.9	22.1	15.3	3.2
형제 수별	1-2명	54.6	3.50	1.13	1.375	21.6	31.3	27.0	15.6	4.5
	3-4명	37.8	3.56	1.12		23.1	32.1	26.9	13.1	4.6
	5명이상	7.6	3.31	1.13		15.4	30.8	29.2	18.5	6.1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46	1.09	1.004	17.3	35.2	28.2	14.1	5.1
	상업.서 비스업	25.0	3.50	1.15		24.3	25.7	30.8	14.1	5.1
	회사원	13.4	3.69	1.04		25.2	34.8	24.3	14.8	0.9
	공무원	16.7	3.43	1.13		19.6	30.8	26.5	18.9	4.2
	기타	26.7	3.51	1.16		21.9	33.3	24.6	14.0	6.2

(*** p<0.001)

견 조정에 대해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성별($p<0.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긍정적 반응이 남자(48.2%)보다 오히려 여자(58.6%)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특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난 집단은 학년별로는 5학년(53.9%)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호자 학력별 긍정적 반응은 대졸(59.4%)이 가장 높고 국졸(43.9%)이 가장 낮으며, 형제수 별로는 3-4명(55.2%), 보호자 직업별로는 회사원(60.0%)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2) 바른 의견의 수용 태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토론 과정에서의 바른 의견의 수용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 용기 있게 고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 들인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9.9%)이 부정적 반응(14.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바른 의견의 수용 태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변인별에 따른 반응 결과, 지역별($p<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시 지역(63.5%)이 읍. 면 지역(52.3%)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도시에 사는 학생이 바른 의견에 대한 수용 태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으나, 긍정적인 반응이 높

<표 14> 바른 의견의 수용 태도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68	1.07	25.6	34.3	25.4	11.7	3.0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 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64	1.04	0.969	22.5	36.1	27.1	11.5	2.8
	여	49.1	3.71	1.11		28.8	32.4	23.6	11.9	3.3
학년 별	5학년	50.5	3.67	1.04	0.090	25.9	30.6	29.4	12.5	1.6
	6학년	49.5	3.69	1.10		25.2	38.2	21.2	10.8	4.6
지역 별	읍·면	31.3	3.53	1.11	7.476	22.8	29.5	30.2	13.0	4.5
	시	68.7	3.75	1.05		26.9	36.6	23.0	11.1	2.4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49	1.07	1.762	18.3	34.1	29.3	14.6	3.7
	중졸	13.9	3.59	1.02		21.0	33.6	30.3	13.4	1.7
	고졸	50.6	3.69	1.08		25.9	35.1	24.4	11.1	3.5
	대졸이상	25.9	3.78	1.08		30.2	33.3	23.0	10.8	2.7
형제 수별	1-2명	54.6	3.69	1.05	1.235	25.9	32.5	29.6	9.0	3.0
	3-4명	37.8	3.69	1.08		25.5	37.7	19.8	14.5	2.5
	5명이상	7.6	3.48	1.20		23.1	30.8	23.0	16.9	6.2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49	1.12	1.929	30.5	30.1	29.5	15.4	4.5
	상업·서 비스업	25.0	3.70	1.09		27.6	32.7	24.8	12.1	2.8
	회사원	13.4	3.77	1.09		27.8	40.0	17.4	11.3	3.5
	공무원	16.7	3.73	1.04		25.2	38.5	24.4	8.4	3.5
	기타	26.7	3.72	1.03		26.3	33.3	27.6	11.0	1.8

(** p<0.01)

은 집단은 성별로는 여자(61.2%), 학년별로는 6학년(63.4%),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63.5%), 형제수 별로는 3-4명(63.2%), 보호자 직업별로는 회사원(67.8%) 등으로 나타났다.

3) 투표권의 행사에 대한 태도

민주 시민의 중요한 권리인 투표권의 바른 행사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투표를 할 때 나 스스로 결정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5>에 나타난 것처럼, 긍정적 반응(64.7%)이 부정적 반응(14.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투표권의 행사에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차 새로운 선거 문화의 정착에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보호자 직업별($p<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긍정적 반응이 공무원(71.3%), 농. 수산업(69.2%), 상업. 서비스업(66.3%), 회사원(64.4%)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회사원이 가장 낮은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으나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성별로는 여자(66.6%), 보호자 학력별로는 고졸(67.5%), 형제수 별로는 5명 이상(69.2%) 등으로 나타났다.

<표 15> 투표권의 행사에 대한 태도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87	1.20	41.8	22.9	20.4	10.2	4.7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 응 구 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 별	남	50.9	3.83	1.23	1.111	41.3	22.0	20.6	10.3	5.8	
	여	49.1	3.91	1.16		42.3	23.8	20.2	10.0	3.6	
학년 별	5학년	50.5	3.86	1.21	0.116	41.7	22.7	20.6	9.7	5.3	
	6학년	49.5	3.88	1.18		42.0	23.1	20.3	10.6	4.0	
지역 별	읍. 면	31.3	3.87	1.17	0.002	42.2	20.5	23.1	10.8	3.4	
	시	68.7	3.87	1.21		41.7	24.0	19.1	9.9	5.3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73	1.34	1.810	42.7	17.1	18.3	14.6	7.3	
	중졸	13.9	3.68	1.27		38.7	16.0	25.2	15.1	5.0	
	고졸	50.6	3.93	1.15		42.3	25.2	19.8	9.0	3.7	
	대졸이상	25.9	3.90	1.20		42.3	24.3	19.9	8.1	5.4	
형제 수별	1-2명	54.6	3.83	1.22	0.501	42.0	19.9	21.8	12.0	4.3	
	3-4명	37.8	3.91	1.17		41.4	26.5	19.2	8.0	4.9	
	5명이상	7.6	3.92	1.22		43.1	26.1	16.9	7.7	6.2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94	1.18	3.077	*	43.6	25.6	16.0	10.9	3.9
	상업.서 비스업	25.0	3.93	1.17			43.4	22.9	20.6	8.9	4.2
	회사원	13.4	3.86	1.12			38.3	26.1	20.9	13.0	1.7
	공무원	16.7	4.06	1.07			46.1	25.2	20.3	5.6	2.8
	기타	26.7	3.65	1.31			38.2	18.0	23.2	12.3	8.3

(* p<0.05)

4) 민주 사회에서의 절차 영역의 자질

민주 사회에서의 절차 영역의 3개 변인의 자질을 종합해 보면,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표권의 바른 행사(M=3.87), 바른 의견의 수용 태도(M=3.68), 의견 조정에 대한 태도(M=3.51) 등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를 더욱 생활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민주 사회에서의 절차 영역의 자질

의견 조정에 대한 태도	[Bar chart showing a score of approximately 3.5]				
바른 의견의 수용 태도	[Bar chart showing a score of approximately 3.8]				
투표권 행사에 대한 태도	[Bar chart showing a score of approximately 3.8]				
내용	1	2	3	4	5
M					

4. 합리적 의사 결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합리적 의사 결정 영역에 대한 자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6개의 문항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쟁점 결정의 바른 태도, 토론 참여의 바른 태도, 합리적인 결정, 다수결의 원리의 존중, 개방적인 의사 결정, 진실에 대한 인식 등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결정의 바른 태도

쟁점의 결정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

<표 16> 쟁점 결정의 바른 태도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92	1.02	33.8	36.3	19.9	8.3	1.9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88	1.06	1.286	33.7	35.1	19.1	9.6	2.5
	여	49.1	3.96	0.96		33.8	37.4	20.7	6.9	1.2
학년 별	5학년	50.5	3.94	1.03	0.532	36.8	32.2	20.8	8.8	1.4
	6학년	49.5	3.89	1.01		30.7	40.3	18.8	7.8	2.4
지역 별	읍.면	31.3	3.85	1.06	1.859	33.2	32.1	23.5	8.6	2.6
	시	68.7	3.95	0.99		34.0	38.1	18.2	8.2	1.5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65	1.15	3.838 **	31.7	22.0	26.8	18.3	1.2
	중졸	13.9	3.84	1.05		31.9	34.5	21.0	10.9	1.7
	고졸	50.6	3.91	0.97		31.2	39.3	20.7	7.2	1.6
	대졸이상	25.9	4.07	1.01		40.5	36.5	14.9	5.4	2.7
형제 수별	1-2명	54.6	3.95	1.00	1.209	34.3	37.0	19.9	6.6	2.2
	3-4명	37.8	3.91	1.01		33.3	36.4	19.4	9.6	1.3
	5명이상	7.6	3.74	1.15		32.3	29.2	21.6	13.8	3.1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85	1.09	1.350	34.6	32.1	19.2	12.2	1.9
	상업.서 비스업	25.0	3.85	1.02		31.8	33.6	24.3	8.4	1.9
	회사원	13.4	3.84	0.98		27.0	42.6	20.0	8.7	1.7
	공무원	16.7	4.05	0.98		39.2	35.7	18.1	4.9	2.1
	기타	26.7	3.98	0.99		35.1	38.6	17.1	7.5	1.7

(** p<0.01)

면 문제를 결정할 때 옳고 그름을 반드시 생각하고 결정한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70.0%)이 부정적 반응(10.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문제를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쟁점을 결정할 때 매우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보호자 학력별($p<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긍정적 반응이 대졸 이상(77.0%), 고졸(70.5%), 중졸(66.4%), 국졸(53.7%)순으로 낮아지고 있어,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쟁점의 결정에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성별로는 여자(71.2%), 학년별로는 6학년(71.0%), 지역별로는 시 지역(72.1%) 형제수 별로는 1-2명(71.3%),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74.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토론 참여의 바른 태도



토론할 때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가하여 토론할 때 나와 의견이 달라도 침착하게 끝까지 참여한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7>에서 보는 것처럼 긍정적인 반응(65.6%)이 부정적 반응(12.2%)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장인 토론에 참여하는 태도가 바른 것으로 보인다.

<표1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지역별($p<0.05$), 보호자 학력별($p<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지역별로는 시 지역(68.7%)이 읍. 면 지역(59.0%)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으며, 보호자 학력별로

<표 17> 토론 참여의 바른 태도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79	1.05	28.6	37.0	22.1	9.3	2.9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 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73	1.01	2.838	28.7	33.7	23.9	9.6	4.1	
	여	49.1	3.85	0.99		28.6	40.5	20.2	9.0	1.7	
학년 별	5학년	50.5	3.78	1.06	0.047	29.4	36.6	21.8	9.0	3.2	
	6학년	49.5	3.78	1.04		27.8	37.5	22.4	9.7	2.6	
지역 별	읍.면	31.3	3.65	1.10	6.783	25.4	33.6	26.1	10.8	4.1	
	시	68.7	3.85	1.02	*	30.1	38.6	20.2	8.7	2.4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51	1.19	3.958	24.4	29.3	25.6	14.6	6.1	
	중졸	13.9	3.69	0.99		21.0	42.0	23.5	11.8	1.7	
	고졸	50.6	3.79	1.03		*	27.5	38.1	23.5	7.9	3.0
	대졸이상	25.9	3.95	1.05		36.5	35.1	17.1	9.0	2.3	
형제 수별	1-2명	54.6	3.79	1.06	0.399	28.5	37.3	22.2	8.4	3.6	
	3-4명	37.8	3.82	1.04		29.6	37.3	20.1	11.1	1.9	
	5명이상	7.6	3.69	1.03		24.6	33.8	30.8	7.7	3.1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66	1.05	0.763	25.0	32.7	27.6	12.8	1.9	
	상업.서 비스업	25.0	3.83	1.02		28.0	40.7	21.0	7.0	3.3	
	회사원	13.4	3.84	1.02		27.0	45.2	13.9	12.2	1.7	
	공무원	16.7	3.80	1.07		30.0	35.7	22.4	8.4	3.5	
	기타	26.7	3.81	1.08		31.6	33.3	23.3	8.3	3.5	

(* p<0.05)

는 대졸 이상(71.6%), 고졸(65.6%), 중졸(63.0%), 국졸(53.7%)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 도시 학생일수록, 또한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토론에 참여하는 태도가 바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으나,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성별로는 여자(69.1%), 학년별로는 5학년(66.0%), 형제 수별로는 3-4명(66.9%), 보호자 직업별로는 회사원(72.2%) 등인데, 회사원의 자녀가 토론의 바른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특이하다.

3) 합리적인 결정

합리적으로 문제를 결정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 근거나 이유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린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61.6%)이 부정적 반응(11.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18>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지역별 ($p<0.001$), 보호자 학력별($p<0.001$), 형제수별($p<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지역별로는 시 지역(65.1%)이 읍. 면 지역(53.7%)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으며,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73.4%), 고졸(61.2%), 중졸(49.6%), 국졸(48.7%)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낮아지고 있으며, 형제수 별로는 1-2명(62.9%), 3-4명(62.0%), 5명 이상(49.2%) 순으로 낮아져, 합리적인 결정은 지역적으로는 시 지역, 보호자 학력이 높을수록 또한 형제수가 적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긍정적인 반응

<표 18> 합리적인 결정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71	0.98	22.8	38.8	27.1	9.7	1.6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68	0.96	1.289	20.0	41.3	27.0	9.9	1.8	
	여	49.1	3.75	0.99		25.7	36.2	27.2	9.5	1.4	
학년 별	5학년	50.5	3.74	0.98	0.665	24.0	38.0	28.0	7.9	2.1	
	6학년	49.5	3.69	0.97		21.5	39.5	26.2	11.6	1.2	
지역 별	읍.면	31.3	3.54	1.04	12.92	19.0	34.7	30.2	13.1	3.0	
	시	68.7	3.79	0.94		***	24.5	40.6	25.7	8.2	1.0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51	1.06	6.863	20.7	28.0	36.6	11.0	3.7	
	중졸	13.9	3.50	0.90		13.4	36.2	37.8	11.8	0.8	
	고졸	50.6	3.70	0.99		***	22.9	38.3	26.8	10.2	1.8
	대졸이상	25.9	3.93	0.92		28.4	45.0	18.5	7.2	0.9	
형제 수별	1-2명	54.6	3.73	0.98	2.983	23.3	39.6	25.8	9.6	1.7	
	3-4명	37.8	3.74	0.93		*	22.5	39.5	29.1	7.7	1.2
	5명이상	7.6	3.43	1.12		20.0	29.2	27.7	20.0	3.1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65	1.00	0.912	21.2	37.2	29.5	9.6	2.5	
	상업.서 비스업	25.0	3.71	0.95		23.8	35.5	28.5	11.7	0.5	
	회사원	13.4	3.72	0.88		16.5	49.6	25.2	7.0	1.7	
	공무원	16.7	3.85	0.99		29.4	37.8	21.6	10.5	0.7	
	기타	26.7	3.68	1.00		21.9	38.2	28.5	8.8	2.6	

(* p<0.05 *** p<0.001)

이 높은 집단은 보호자 직업별로 공무원(67.2%)이다.

4) 다수결 원리의 존중

민주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의 생각과 달라도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이에 따른다’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64.0%)이 부정적 반응(17.1%)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에 나타난 것처럼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보호자 직업별 ($P<0.05$)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긍정적 반응은 보호자 직업별로 공무원(70.0%), 상업·서비스업(69.6%), 회사원(67.0%), 농·수산업(55.8%)순으로 낮아지고 있어, 보호자 직업이 농·수산업인 학생이 긍정적 반응이 가장 낮다.

그외 배경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긍정적 반응이 높은 집단은 성별로는 남자(64.2%), 학년별로는 6학년(67.0%),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67.5%), 형제 수별로는 3-4명(67.0%) 등이다.

<표 19> 다수결 원리의 존중

(1)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72	1.22	32.1	31.9	18.9	9.6	7.5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66	1.25	1.697	30.0	34.2	16.1	11.5	8.2	
	여	49.1	3.77	1.19		34.3	29.5	21.9	7.6	6.7	
학년 별	5학년	50.5	3.68	1.27	0.648	34.5	26.6	20.0	10.6	8.3	
	6학년	49.5	3.75	1.16		29.7	37.3	17.9	8.5	6.6	
지역 별	읍.면	31.3	3.68	1.19	0.290	29.1	34.3	18.7	11.6	6.3	
	시	68.7	3.73	1.23		33.5	30.8	19.0	8.7	8.0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65	1.23	0.699	29.3	31.7	22.0	8.5	8.5	
	중졸	13.9	3.71	1.10		26.9	36.1	21.0	12.6	3.4	
	고졸	50.6	3.68	1.26		32.1	30.9	18.7	9.5	8.8	
	대졸이상	25.9	3.82	1.21		36.0	31.5	17.1	8.6	6.8	
형제 수별	1-2명	54.6	3.69	1.25	1.373	32.8	29.8	18.6	10.9	7.9	
	3-4명	37.8	3.79	1.17		33.0	34.0	19.1	7.1	6.8	
	5명이상	7.6	3.55	1.20		23.1	36.9	20.0	12.3	7.7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51	1.29	2.582	27.6	28.2	22.4	11.5	10.3	
	상업.서 비스업	25.0	3.84	1.20		*	36.4	33.2	14.0	10.3	6.1
	회사원	13.4	3.66	1.28		29.6	37.4	13.0	9.6	10.4	
	공무원	16.7	3.90	1.34		37.1	32.9	17.4	7.7	4.9	
	기타	26.7	3.66	1.19		29.4	29.8	25.0	8.8	7.0	

(* p<0.05)

5) 개방적인 의사 결정

의사를 결정할 때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의견을 선택할 때 의견을 낸 사람을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50.6%)이 부정적 반응(20.4%)보다 높으나, 잘 모르겠다(29.0%)라는 반응을 포함하면 의사를 결

<표 20> 개방적인 의사 결정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45	1.20	22.7	27.9	29.0	12.1	8.3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 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32	1.22	9.926	19.3	27.1	30.2	13.1	10.3
	여	49.1	3.58	1.17		**	26.2	28.8	27.6	11.2
학년 별	5학년	50.5	3.41	1.23	0.756	23.4	25.7	28.5	13.4	9.0
	6학년	49.5	3.48	1.17		21.9	30.2	29.5	10.8	7.6
지역 별	읍.면	31.3	3.45	1.17	0.002	22.0	27.2	31.4	12.3	7.1
	시	68.7	3.44	1.22		23.0	28.2	27.9	12.1	8.8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40	1.14	0.077	19.5	26.8	35.4	11.0	7.3
	중졸	13.9	3.48	1.10		17.6	37.0	26.9	12.6	5.9
	고졸	50.6	3.45	1.20		23.1	26.6	30.7	11.5	8.1
	대졸이상	25.9	3.43	1.29		25.7	26.1	24.3	13.5	10.4
형제 수별	1-2명	54.6	3.43	1.22	0.391	23.3	25.9	29.8	12.0	9.0
	3-4명	37.8	3.49	1.17		21.6	31.8	27.8	11.4	7.4
	5명이상	7.6	3.37	1.23		23.1	23.1	29.2	16.9	7.7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42	1.20	1.879	21.8	26.9	30.8	12.2	8.3
	상업.서 비스업	25.0	3.61	1.20		26.2	33.6	24.3	7.0	8.9
	회사원	13.4	3.44	1.17		22.6	24.3	33.9	12.2	7.0
	공무원	16.7	3.27	1.29		21.0	24.5	26.5	16.1	11.9
	기타	26.7	3.43	1.15		21.1	27.2	31.1	14.5	6.1

(** p<0.01)

정할 때 개방적인 자세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성별($p<0.01$)로는 유의한 차를 보여, 여학생(55.0%)이 남학생(46.4%)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사 결정이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집단은, 학년별로는 6학년(52.1%), 지역별로는 시 지역(51.2%), 보호자 학력별로는 중졸(54.6%), 형제 수별로는 3-4명(53.4%), 보호자 직업별로는 상업, 서비스업(59.8%)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졸 및 상업, 서비스업의 긍정적 반응이 높은 것은 매우 특이하다 하겠다.

6) 진실에 대한 인식

자신이 얻은 정보를 검토하여 바르게 인식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인가를 확인해 본다' 라는 문항을 제시한 결과,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 반응(63.0%)이 부정적 반응(20.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진실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집단은 성별로는 여자(64.0%), 학년별로는 6학년(63.4%), 지역별로는 시 지역(64.1%), 보호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67.6%), 형제 수별로는 3-4명(64.5%), 보호자 직업별로는 공무원(68.6%)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 진실에 대한 인식

(1) 전체 반응 결과

N	M	SD	반응 구분 (%)				
			확실히 그렇다	그런것 같다	잘 모르 겠다	아닌 것 같다	확실히 아니다
856	3.64	1.21	27.8	35.2	16.2	13.6	6.8

(2) 배경 변인에 따른 반응 결과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M	SD	F	반응 구분 (%)				
						확실 히그 렇다	그런 것같 다	잘모 르겠 다	아닌 것같 다	확실 히아 니다
성별	남	50.9	3.58	1.23	2.090	25.2	36.7	17.5	11.9	8.7
	여	49.1	3.70	1.19		30.5	33.5	16.0	15.2	4.8
학년 별	5학년	50.5	3.61	1.21	0.462	25.9	36.6	17.4	12.7	7.4
	6학년	49.5	3.67	1.22		29.7	33.7	16.1	14.4	6.1
지역 별	읍.면	31.3	3.60	1.21	0.343	26.9	33.6	18.6	14.6	6.3
	시	68.7	3.65	1.21		28.2	35.9	15.8	13.1	7.0
보호 자학 력별	국졸	9.6	3.49	1.23	2.459	20.7	37.8	22.0	8.5	11.0
	중졸	13.9	3.40	1.24		23.5	26.9	22.7	20.2	6.7
	고졸	50.6	3.69	1.19		29.6	35.3	15.7	13.6	5.8
	대졸이상	25.9	3.71	1.21		29.3	38.3	13.5	11.7	7.2
형제 수별	1-2명	54.6	3.66	1.19	2.141	28.3	35.3	17.1	13.1	6.2
	3-4명	37.8	3.66	1.23		29.0	35.5	15.1	13.0	7.4
	5명이상	7.6	3.34	1.22		18.5	32.3	21.5	20.0	7.7
보호 자직 업별	농.수산 업	18.2	3.51	1.25	0.804	23.1	37.8	14.1	16.7	8.3
	상업.서 비스업	25.0	3.62	1.23		28.5	32.2	19.7	11.7	7.9
	회사원	13.4	3.64	1.19		27.0	34.8	19.1	13.0	6.1
	공무원	16.7	3.74	1.17		29.4	39.2	13.3	12.6	5.6
	기타	26.7	3.68	1.20		29.8	33.8	16.7	14.0	5.7

7) 합리적 의사 결정의 자질

합리적 의사 결정 영역의 6개 변인의 자질을 종합, 분석하여 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결정의 태도(M=3.92), 토론 참여의 바른 태도(M=3.79), 합리적인 결정(M=3.71), 다수결 원리의 존중(M=3.72), 진실에 대한 인식(M=3.64), 개방적인 의사 결정(M=3.45) 등 전 변인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 민주 시민으로서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합리적인 의사 결정 영역의 자질

쟁점결정의 바른 태도			3.92			
토론 참여의 바른 태도			3.79			
합 리 적 인 결 정			3.71			
다수결 원리의 존중			3.72			
개방적인 의사 결정			3.45			
진 실 에 대 한 인 식			3.64			
내용	M	1	2	3	4	5

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국민학생의 민주 시민의 자질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국민학교 민주 시민 교육 개선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연구, 제시한 ‘인간의 존엄성, 공공 질서, 민주사회에서의 절차, 합리적 의사 결정’의 4개 영역으로 국한하였다.

표집방법은 制限標本抽出(Restricted Sampling)에 의한 群集標集方法(Cluster Sampling Technique)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는데, 학생수와 지역을 고려하여 제주시 지역 5개교 470명, 서귀포시 지역 2개교 150명, 북제주군 지역 2개교 140명, 남제주군 지역 2개교 140명 등 총 11개교 900명을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표집된 인원은 896명이었으나 성의가 없는 응답지를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된 표집수는 856명이었다.

조사 도구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 영역에 4개 문항, 공공 질서 영역에 5개 문항, 민주사회에서의 절차 영역에 3개 문항, 합리적인 의사 결정 영역에 6개 문항 등 18개의 문항과, 성별, 학년, 지역, 보호자 학력, 형제수, 보호자 직업 등 6개의 배경변인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이들 문항의 측정은 Likert식을 사용하였으며, F검중에 의하여 6개의 배경변인별 각 집단간의 차에 대한 유의성을 비교하였고, 각 영역별에 따른 내용별 반응결과는 편의상 영역별로 전체 반응 분석비율을 제시한 다음,

이를 내용별로 분류해서 분석 및 해석하였으며, 배경 변인별로 두드러진 특징적 성향만을 요약. 제시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영역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자유에 대한 바른 태도,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 등 4 가지의 자질을 측정하였는데, 긍정적인 반응경향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89.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에 대한 바른 태도(69.3%)와 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57.2%)도 긍정적인 반응이 비교적 높으나,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는 긍정적 반응(36.1%)보다 오히려 부정적 반응(38.1%)이 높게 나타났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은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93.0%)인 경우가 가장 긍정적인 반응이 높고, 농. 수산업(86.5%)이 낮으며, 자유에 대한 바른 태도는 시 지역(72.6%)이 읍. 면 지역(62.3%)보다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 학력이 대졸(77.0%)인 경우 긍정적 반응이 높고, 국졸(62.2%)이 가장 낮다.

평등에 대한 바른 태도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38.1%)이 긍정적 반응(36.1%)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보호자 학력이 국졸(46.3%)인 경우 부정적 반응이 가장 높고, 대졸 이상(29.7%)이 긍정적 반응이 가장 낮으며, 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바른 인식은 긍정적 반응(57.2%)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공공 질서 영역에서는 공공 규칙에 대한 태도, 약속에 대한 의지, 절약 정신, 환경 보전 활동의 참여,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 등 5 가지의 자질을 측정하였는데, 가장 긍정적인 반응경향은 약속에 대한 의지(61.9%)로 나타났으며, 절약 정신(40.8%), 환경 보전 활동의 참여(45.0%),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39.0%) 등은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낮다.

공공 규칙에 대한 태도는 여자(61.6%), 시 지역(64.6%), 보호자 학력이 대졸 이상(64.0%)의 집단이 긍정적 반응이 높고, 특히 보호자 직업이 회사원(66.9%)인 집단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보호자 학력이 국졸(32.9%)의 부정적 반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속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 반응이 형제수별로 3-4명의 경우(66.4%)가 5명 이상(49.2%)의 집단보다 높고, 보호자 학력이 대졸(70.3%)인 경우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약 정신은 보호자 학력이 대졸 이상(49.6%)의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고, 국졸의 경우는 긍정적 반응(28.1%)보다 부정적 반응(47.5%)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은 매우 특이하다. 또한 보호자 직업이 농. 수산업(39.0%), 형제수가 5명 이상(35.4%)의 경우도 부정적 반응이 높다.

환경 보전 활동의 참여는 긍정적 반응이 보호자 학력별로 대졸 이상(51.4%)이 가장 높고, 국졸의 경우는 긍정적 반응(31.7%)보다 부정적 반응(39.0%)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 반응(39.0%)이 매우 낮아,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호자 학력이 대졸 이상(78.2%)의 긍정적 반응은 높으나, 형제수가 5명 이상(56.9%), 보호자 학력이 중졸(45.4%), 국졸(45.2%), 보호자 직업이 농. 수산업(45.4%), 지역 별로는 읍. 면 지역(41.4%)집단은 부정적 반응이 높다.

셋째, 민주사회에서의 절차 영역에서는 의견 조정에 대한 태도, 바른 의견에 대한 수용 태도, 투표권의 행사에 대한 태도 등 3 가지 자질을 측정하였는데,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은 것은 투표권의 바른 행사(64.7%)였으며, 의견 조정에 대한 태도(53.2%), 바른 의견의 수용 태도(59.9%) 등도 비교적 긍정적 반응이 높았다.

의견 조정에 대한 태도는 보호자 직업별로 회사원(60.0%)집단의 긍정적 반응이 높았으며, 바른 의견에 대한 수용 태도는, 보호자 직업별로 회사원(67.8%)집단의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았고, 투표권의 바른 행사는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71.3%)집단이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았다.

넷째, 합리적인 의사 결정 영역에서는, 쟁점 결정의 바른 태도, 토론 참여의 바른 태도, 합리적인 결정, 다수결 원리의 존중, 개방적인 의사 결정, 진실에 대한 인식 등 6개의 자질을 측정하였는데, 쟁점 결정의 바른 태도(70.1%), 토론 참여의 바른 태도(65.6%), 다수결 원리의 존중(64.0%), 진실에 대한 인식(63.0%), 합리적인 결정(61.6%), 개방적인 의사 결정(50.6%)의 순으로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 결정의 바른 태도는 긍정적 반응이 대졸 이상(77.0%)이 가장 높고, 국졸(53.7%)이 가장 낮아 보호자의 학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론 참여의 바른 태도는 시 지역(68.7%), 대졸 이상(71.6%)의 긍정적 반응이 높고, 읍. 면 지역(59.0%), 국졸(53.7%)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집단이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합리적인 결정은 시 지역(65.1%), 대졸 이상(73.4%), 형제수 1-2명(62.9%) 집단의 긍정적 반응이 높고, 읍. 면 지역(53.7%), 국졸(48.7%), 형제수 5명 이상(49.2%)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수결 원리의 존중은 보호자 직업이 공무원(70.0%)의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고, 농. 수산업(55.8%)이 가장 낮다.

개방적인 의사 결정은 여자(55.0%)가 남자(46.4%)보다 더욱 개방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실에 대한 인식은 모든 집단의 긍정적 반응이 비교적 높아 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요약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국민학생의 민주 시민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 영역의 자질은 전 영역 중 긍정적 반응이 가장 높아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의 실현에 매우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중 평등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나, 보다 올바른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평등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한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공공 질서 영역의 자질은 전 영역 중 긍정적 반응이 가장 낮으며, 특히 절약 정신과 공공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인의 절약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삼무정신 교육의 강화는 물론 이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셋째, 민주사회에서의 절차 영역의 자질은 비교적 긍정적 반응이 높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조정하고 수용하고 있음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특별활동 교육 등의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합리적인 의사 결정 영역의 자질 또한 비교적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사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려는 인식이 높은 것은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韓國文獻

<單行本>

- 곽병선 외(1993), 『민주적 학생지도 민주적 학교 운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81), 『國民精神 教育 指導資料』,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金蘭洙(1964), 『民主市民 教育의 方法』, 現代教育叢書出版社.
- 金在恩(1987), 『韓國人の 意識과 行動樣式』,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종철(1987), 『교육 민주화와 교육 발전』, 사회발전연구소.
- 金泰吉(1982),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문음사.
- 金河龍, 韓培浩(1974), 『政治學』, 日新社.
- 문교부(1972), 『한국 민주주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申正鉉 외(1987), 『民主 市民 教育論』, 探求堂.
- 吳天錫(1975), 『민주 교육을 지향하여』, 광명출판사.
- 이규호(1972), 『교육과 정치』, 제일출판사.
- 李克燦(1983), 『민주주의』, 종로서적.
- 이영호(1981), 『국민의식 연구』, 사회정화위원회.
- 정범모(1968), 『價値觀과 教育』, 배영사.
- 鄭世九(1985), 『國民精神 教育의 課題』, 科學教育社.
- 차기벽(1980), 『민주주의 이념과 역사』, 한길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2), 『나라와 주인』, 고려원.

한국교육개발원(1974), 『韓國人像의 探究』, 教育出版社.

韓培浩, 魚秀永(1987), 『한국정치문화』, 법문사.

<論文>

康勳吉(1977), “韓國教育理念과 教育的 人間像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金大煥(1983), “國民生活과 意識改革의 方向”, 『國民意識의 現代的 診斷』,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도재욱(1988), “정치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석렬(1985),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정치교육”,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시민 교육』, 한국사회교육학회 제36차 연구발표회논문집.

李永德(1968), “民主主義의 基本 價値와 民主主義의 資質”, 『民主市民性 敎
育資料』, 경남교육연구원.

이영기(1981), “산업사회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
회과 연구실.

전숙자(1990), “한국의 민주시민성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
학교 대학원.

鄭世九(1986), “市民精神 敎育”, 『未來指向 人間 敎育』, 서울특별시교육위원
회.

崔鍾德(1985), “市民敎育과 社會科 敎育의 課題”, 韓國社會科 敎育學會“,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민주시민 교육』, 한국 사회교육학회 제36차
연구 발표회 논문집.

2. 西洋文獻

Dewey, John(1916), *Democracy and education*, The macmillan Co.

Mannhein, Karl(1965), *Freedom, Power and Democratic Planning*, Oxford University Press.

Meier, Arnold R.(1952), *A Curriculum for Citizenship*, Detroit Wayne Univ. Press.

Pennock, J. Roland(1979), *Democratic Political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Rejai, M.(1967), *Democracy, The Contemporary Theories*, Atherton Press: New York.

Shaver, J. P(1981), "Citizen Ship, Values and Morality in Social Studies", *The social Studies Eightieth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art II*, Chicago: Chicago Press.



<Summary>

A Study on the Democratic Feature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heju

Kim, Chul- Ho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ang-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enerate basic attitudinal data that might assist in the improve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the systemat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responses of Cheju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democratic principles, the study explored the func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in socializing students to participate in a free democratic society.

The study's method included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questionnaire. The respondents were 856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ving in Cheju.

The questionnaire was comprised of 18 items that were organized within four categories :

- . 4 questions in the human dignity category.
- . 5 questions in the public order category.
- . 3 questions in the democratic process category.
- . and 6 open discussion questions in the reasonable process category.

I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the general response is first discussed and, then, other responses, based upon the background variables are presented and analyzed.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human dignity variable demonstrated the most positive response of all four sections. This finding reflects the positive attitude communicated by students who expressed a desire to realize the foundations of a democracy. In contrast, many students expressed a negative attitude toward values of equality which often require complex, problem-solving analytical abilities.

2. In terms of the public order variable, here the research findings demonstrated the least positive response, especially in relation to questions concerning the economy and the maintenance of social stability.

3. Responses within the democratic process section were relatively positive, perhaps suggesting that kids tend to follow

democratic principles in their discuss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4. Finally, the reasonable process variable elicited a generally favourable response and implied that many issues might be resolved through group discussions.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re is a great deal of potential support among stud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principles.



<부록>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국민학교 어린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거나 틀린 답은 없으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대답 결과는 절대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분석하지 않고 전체적인 분석만 할 것이며, 결과는 오직 학문 연구에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잘 읽고 성의있게 답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994. 1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김 철 호

● 다음 문항을 잘 읽고 5개의 보기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V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 확실히 | 그런것 | 잘모르 | 아닌것 | 확실히 |
|------------------------------------|-----|-----|-----|-----|-----|
| | 그렇다 | 같다 | 같다 | 같다 | 아니다 |
| 1. 모든 사람이 나와 똑 같이 소중한다고 생각한다. | | | | | |
| 2. 스스로 결정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꼭 책임을 진다. | | | | | |
| 3. 다른 어린이들을 차별해서 대해본 적이 없다. | | | | | |

확실히 그런것 잘모르 아닌것 확실히
 그렇다 같다 겠다 같다 아니다

4. 우리 고장이나 학교를 우리 가정처럼
 소중히 여긴다.

5. 교통 질서등 공공 규칙을 잘 지킨다.

6.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어떤 일이 있
 어도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

7. 항상 절약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
 한다.

8.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

9.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
 면 지적해 주거나 충고해 준다.

10.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는 이야
 기를 나누어 해결한다.

11. 나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 용기
 있게 고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확실히 그런것 잘모르 아닌것 확실히
 그렇다 같다 겠다 같다 아니다

12. 투표를 할 때는 나 스스로 결정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13.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옳고 그름을 반드시 생각하고 결정한다.



14. 회의에 참가하여 토론할 때 나와 의견이 달라도 침착하게 끝까지 참여한다.



15.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근거나 이유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린다.



16. 나의 생각과 달라도 많은 사람이 결정하면 이에 따른다.



17. 의견을 선택할 때 의견을 낸 사람을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18.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인가 확인해 본다.



▣ 다음 물음에 알맞은 것에 ○ 표 하세요.

19. 귀하의 성별은? 1) 남 자 () 2) 여 자 ()
20. 귀하의 학년은? 1) 5 학 년 () 2) 6 학 년 ()
21. 귀하가 살고 있는 곳은? 1)면 지역() 2)읍 지역 () 3)시 지역 ()
22. 귀하의 보호자의 학력은? 1) 국민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이상()
23. 귀하의 형제수는? 1) 혼자 () 2) 2 명 () 3) 3 명 ()
4) 4 명 () 5) 5 명 이상 ()
24. 귀하의 보호자의 직업은? 1) 농, 수산업 () 2)상업, 서비스업 ()
3) 회사원 () 4) 공무원 () 5) 기타 ()

